

# “한스월드 건립 일본대표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어”

〈화성 국제테마파크〉



일본의 코마츠 전기 코마츠 회장이 한스월드 건립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홍정수 기자 jshong204@

## 코마츠 아키오 회장, 韓·日 협력 강조

코마츠 아키오(小松昭夫·65)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세계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이자 코마츠(小松)전기산업(주)의 설립자인 코마츠 회장은 한스월드 내 문화(문화 역사 철학) 센터가 바로 그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스월드는 오는 2013년 한·중·일 3국의 문화, 역사, 철학, 환경을 테마로 조성되는 국제문화테마단지이다. 총 6조원 규모의 한스월드 조성 사업에 코마츠 전기산업(주)은 일본 대표 기업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하 코마츠 회장과의 일문일답  
- 자신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18세에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기계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 후 경운기 폼바인 등을 취급하는 농기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일본 3대 농기계 메이커로 꼽히던 그곳에서 8년간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뒤에는 오사카에서 2년간 경영학 공부를 했고, 고향인 시네마현에서 코마츠 전기산업(주)을 세웠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돈지가 갖고 있는 조건, 사람이 일구어 낼

수 있는 힘, 여기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HNS, Human Nature Science Institute Foundation)를 설립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 인간자연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는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

## “돈을 유익하게 쓰자”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설립 “지구 온난화 막는데 도움 되는 상품 개발할 것”

- 그럼 돈은 왜 버는개?

“인생을 유익하게 풍족하게 살기 위한 과정 안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번 돈을 유익하게 쓰는 것이 더 힘들지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부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유익하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사이클이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힘아라기보다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코마츠 회장(오른쪽)과 전재철 한스월드 회장.

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상품은 상수도 하수도를 제어하는 수질관리시스템입니다.

HNS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활용해 첨단기술을 어떻게 접목 시키느냐,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브랜드화 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합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가지고 평화를 사업화합니다.

한스월드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에 다시 한 번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에도 이 기술을 제공해 현재는 한국에서도 만들어지

오성민 기자 nickioh@

■ 화성 ‘한스월드’는 2013년 5조 투입 韓中日 문화담아

한스월드(전재철 회장)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인간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종합 관광테마파크다.

화성시 팔탄면 일대 60여 만평에 총공사비 5조 7000억을 투입한다. 1차로 2012년 국제문화사찰·환경센터·워터파크·호텔 등을 건설한다. 2013년에는 한·중·일 3국의 문화, 역사, 철학, 환경을 테마로 타운을 조성, 단순한 재미가 아닌 체험과 교육, 휴식을 겸한 신개념 관광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과 관광을 접목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한스월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인구 2200만 명의 배후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인천 국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등 외국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아 연 25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 내에 있는 연꽃 군락지 ‘동방호수’는 온천수가 4군데나 솟아지고 있어 온천관광지로 지정될 만큼 특화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대항리 평화공원, 궁평항, 전곡 요트장 등 연계 관광이 쉬워 다양한 상품개발도 가능하다. 윤용환 기자 happyyh63@

CEO가 기업의 가치와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

www.ceopost.co.kr

# 국내 최대 경영포털 ‘CEO포스트’

## ハンスワールド 建立 日本代表企業として参与していきたい 小松昭夫会長、韓日協力強調

小松昭夫（65）会長は「韓国と日本は世界人類の進化のために必ず一緒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理事長であり小松電機産業（株）の創立者である小松会長は、ハンスワールド内 文史哲（文化、歴史、哲学）センターが、その意味を最もよく表している」と説明した。

ハンスワールドは来たる 2013 年、韓、中、日 三国の文化、歴史、哲学、環境をテーマに造成する国際文化テーマ団地だ。総額 6 兆ウォン規模のハンスワールド造成作業に小松電機産業（株）は日本代表企業として参与す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

以下 小松会長との一問一答  
ー簡単な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私はエンジニアです。18歳で工業高校を卒業しました。機械科を専攻したために、卒業後、耕運機コンバインなどを取り扱う農業機械会社に就職しました。そのとき日本の三大農業機械メーカーとして数えられ、そこで8年間勤務しました。

会社が倒産したために、大阪で二年間経営学の勉強をして、故郷である島根県で小松電機産業（株）を立ち上げました。

時代が早く変化していますが、土地が持っている条件、人が発揮することができる力、ここへ先端技術をつなぎ合わせることができるかに、何よりも思考を多くめぐらせました。

財団法人人間自然科学研究所（HNS、Human Nature Science Institute Foundation）を創立したことも、これと同じ思いが背景になっています。

ー人間自然科学研究所を創立した背景はなんですか。

「ビジネスは、なぜするのか？ お金を稼ぐため？」

ーなら お金はなぜ稼ぐのですか？

「人生を有益に豊かに生きるために、家庭内にお金が必要であるためです。お金は稼ぐのも大変だが、お金を有益に使うことはもっと大変です。

どうやってお金を稼ぐのか、から考えるのではなく、どうやって有益に使うか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それらは自然に循環させて発展することができるサイクルが生まれます。

自分自身の持っている力よりも、周辺環境から得ることができる力が、自然に集まることを知ることです」。

ー人間自然科学研究所が究極的に目標にすることがあれば、なんですか。

「人間自然科学研究所の代表的な発明品のなかの一つである『自動車庫シャッター』は、一時、日本の市場の 70%を占めるほどでした。それから二十年が過ぎ、今は市場占有率が 30%程度あります。

二年前には、この商品で日本の総理の代理から功労賞も受賞しました。韓国企業でもこの技術を提供し、現在は韓国でも作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また、違う代表的な商品は、上水道と下水道を制御する水質管理システムです。

HNS では時代の変化を活用し、先端技術をどうやってつなぎ合わせるのか、商品を市場に出して、ブランド化する過程を研究しています。

既存市場に入るのではなく、新しい市場を作り出すことが重要です。

市場を先導する事業は、利益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その収益をもって平和を事業化するのです。

ハンスワールドに参加することを契機に、地球温暖化を防ぐことに助力ができる商品開発に、もう一度、力を傾ける計画です。

## 華城「ハンスワールド」は 2013 年、5 兆を投入し、韓、中、日、文化を入れる

ハンスワールド（全在天会長）は、人類の過去と現在、未来が共存して、人間と自然が息づく観光テーマパークだ。

華城市八弾面徳川、60 万坪あまり総工事費 5 兆 7000 億を投入する。1 次は 2012 年国際文史哲・環境センター、ウィットパーク、ホテルなどを建設する。2013 年には韓中日、三国の文化、歴史、哲学、環境をテーマにした体験と教育、休息を兼ねた新概念の観光タウンを、開発する予定だ。

これより環境と観光をつなぎ合わせた新しいパラダイムによって、アジアを越えて世界的代表観光名所を位置づけるという計画だ。

ハンスワールドはソウルと仁川など首都圏人口 2200 万人を背景の市場として確保しており、最上の立地条件を備えている。地理的にも仁川国際空港の直近性が良く、250 万人あまりが訪ね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中にある蓮の花の群生地「東方湖水」は、温泉の数が 4 箇所もあって、温泉観光地として指定されるほど特化された観光資源を持っている。周辺にメヒャンリ平和公園、クンピョンハン、チョンゴクヨット港など、連携観光地があり、多様な商品開発も可能だ。